

## 4과

#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 배울 말씀  
여호수아 6장 1-27절

- 읽을 말씀  
여호수아 6장 1-27절

- 외울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을  
신뢰해야 한다.

- 포인트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 준비  
성경, 필기도구

##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방법은 ‘정복 전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명하실 때, 그들을 군사 조직으로 준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원칙을 주셨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땅의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정복해야 할 곳은 ‘여리고 성’이었다. 여리고 성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방법은 언약궤를 든 제사장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연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돋 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다(수 6:3-5).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하반절).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따라야 하는 ‘믿음의 싸움’임을 보여주셨다.

4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자.

### 핵심 단어 여리고 성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향으로 30km, 사해 북쪽 방향으로 12km 지점에 있던 크고 견고한 성이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하면 내벽은 최대 높이 14m, 외벽의 폭은 2-5m, 전체 크기는 약 10,000 평(약 33,000m<sup>2</sup>)에 이르는 성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가 많은 이스라엘이 공격한다 해도 당시의 무기와 전술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야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었다. 발굴 당시 발견된 많은 항아리에 양식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투가 끝났음을 알려준다.



‘달팽이가 바다를 건너다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교재 ‘이음’에 적고 나누어 보세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거나, 해결하거나, 달성하거나, 얻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성취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이 생겼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삶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절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아주 크고 튼튼한 성이었고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북쪽 아람으로 가거나, 반대 길로 가거나, 가나안에서 오는 상인들이 모두 거쳐 가야 하는 요지였어요. 그런데 이 큰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왜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흔과 옥을 전멸시킨 일도 들은 상태였어요(수 2:8-11).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도 없었어요.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여리고 성을 단지 빙글빙글 돌라는 거였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돋 후 여리고 성을 향해 크게 소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재 '듣음'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당황하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들은 왜 당황하며 놀랐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교재에 적고 나누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며 놀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일반적인 전쟁 방법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랐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놀랍게도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기는 '믿음의 싸움'임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에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

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 이유는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싸워 이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나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바로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믿음의 싸움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싸우는 싸움을 의미해요.

우리도 진로, 친구 관계, 학교생활, 가정 생활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적인 갈등은 항상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해요.

## DEEP Q

1.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치른 여리고 성 전투를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2.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의 주민이나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섞여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성 주민들의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길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 결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재 ‘결음’에 적고 나누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 시험 기간에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용돈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 주일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않는 것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 구절을 참고하여 적어보세요.

▣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막 13:13).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눅 22:40).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요일 5:4).



\*막 13:13, 농 22:40, 요일 5:4

- 막 13:13, 농 22:40, 요일 5:4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의 방법을 더 잘 알게  
하는 말씀을 알아간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간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해요. 믿음으로 싸울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해요.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기 바라는 기도를 하고 마친다.)